

■ 연구원 소식

○ 스리랑카 한달 살이 이야기 연기 안내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달 살이 이야기 나눔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되는대로 회원여러분과 함께 할 날을 잡을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화평한 날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소설 『앵클 톰스 캐빈』의 태동지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소설 「앵클 톰스 캐빈」의 저자 해리엇 비처 스토가 살았던 코네티컷의 한 마을, 하얀 교회는 그녀의 아버지가 시무하던 교회이다.

지난 해 5월 미국 대각성운동 현장을 찾아 코네티컷을 여행하던 중, 미국 여러 곳을 자신의 승용차로 안내해주던 John이 어느 마을에 멈추었다. 그곳은 리치필드였는데, 자신이 이곳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곳이라며,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서는 소설 「앵클 톰스 캐빈(Uncle Tom's Cabin)」의 저자 해리엇 비처 스토가 살았던 곳이고 저기 보이는 하얀 교회는 그녀의 아버지 라이먼 비처가 담임 목사로 시무하였다며 관련 얘기를 들려주었다.

「영클 톰스 캐빈」은 노예해방의 자극제가 되었던 세계적인 소설이다. 그 소설이 태동된 곳, 특히나 저자의 흔적이 있는 곳을 보게 된 것은 그야말로 감개무량이었고 한참 5월인 봄의 계절에 연두 초록에 둘러싸여 하얗게 빛나고 있는 헤리엇 비쳐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노예해방 태동의 상징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마을 중앙의 작은 공원에는 외국 참전 용사들의 기념비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중 하나가 “한국 전쟁 참가 용사 기념비 In Honor of Those from Litchfield who served in Korean War 1950-1955”이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한국 전쟁에 참가 하였는데,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보니 199명이다. 이 작은 동네에서 북한군과 사투를 벌인 군인의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을 보니 숙연해 진다.



리치필드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공원, 중앙의 기념비 중 맨 좌측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이다.

코네티컷은 대각성운동의 주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숨결과 더불어 한국전쟁에 참가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정신에서 감동이 되고 특히 헤리엇 비쳐가 감동을 더해준다. 그래서 이 번호는 그녀에 얽힌 일화와 소설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헤리엇 비쳐는 1811년 이곳 코네티컷 리치필드에서 청교도 목사인 아버지 라이먼 비쳐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그곳에서 성장하였고 교사로 있다가 21살인 1832년에 신학교 설립을 위해 리치필드를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로 이주하였다.



비석에는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군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로 이주하여 살게 된 신시내티는 당시 남부와 가까운 지역으로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지역이었다. 이에 비쳐는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을 수없이 목격하였고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경험을 토대로 1851년에 「앵클 톰스 캐빈」을 출간하였다. 그 내용 중의 일부를 그녀의 책 「앵클 톰스 캐빈」에서 발췌해 본다. 소설은 여자 노예 엘리자가 그녀의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가는 것과 노예 추적자 사이에 쫓고 쫓기는 긴장 넘치는 내용이다.

“엘리자는 이 순간에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숨어 있던 방에서 나와 강으로 향하는 계단을 급히 내려갔다. 그녀가 강둑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노예상인이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사슴을 쫓아가는 사냥개처럼 엘리자의 뒤를 쫓았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엘리자는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듯이 달려 단박에 물가에 다다랐다.

세 사람이 바로 뒤까지 쫓아오자, 그녀는 하나님이 절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해 큰 고함 소리와 함께 어린 딸을 안은 채 공중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탁한 물살을 건너뛰어 멀리 있는 얼음 조각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미칠 정도로 절박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필사의 도약이었다. 추적자들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탄성을 터트렸다.

그녀가 올라탄 얼음 덩어리는 곧 그녀의 몸무게를 못 이겨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처절한 힘을 발휘해 또다시 크게 고함을 지르며 다른 얼음으로, 다시 그 옆의 얼음 위로, 구르며 뛰어 올랐다가, 미끄러졌다가, 다시 용수철처럼 일어나곤 했다. 시발은 이미 사라졌고 양말은 발목 부분에서 찢어져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 마다 얼음에 핏자국이 찍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드디어 오하이오 쪽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자기를 강둑 위로 올려주는 도움의 모습이 꿈속에서처럼 아득하게 보였다.”

소설 속의 엘리자는 우여곡절 끝에 선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에 성공 한다는 얘기다. 또한 저자는 소설속의 인물을 통해서 당대의 부조리하고 비인간적인 사고(思考)로 만연된 사태를 다음과 같이 꼬집기도 한다.

- 오늘날 인간 사냥은 합법적이고 애국적인 직업으로 존경받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시시피강과 태평양 사이의 그 넓은 땅 전체가 인간육체와 영혼을 사고파는 거대한 시장이다. 그리고 인간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19세기 들어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기관차와 마찬가지로 유행하고 있으며, 노예상인과 노예 사냥꾼은 상류층에 속한다는 것도 말이다. 앞의 책 p107. -

그녀가 쓴 흑인들의 참상은 마치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뚜렷하다. 악마의 제도를 무너뜨린 위대한 문학이라 호평 받기에 충분한 소설은 어찌 보면 소설이라기보다는 장엄하고 감동적인 敍事詩이다. 그녀의 고향 땅을 밟은 경험이 있는 나에게 소설의 내용들이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백장선사를 기리는 <수청산 백장암> 세 번째 이야기 “호국의 천년 사찰 실상사”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실상사 경내 | 들판 한가운데 내려온 특이한 절로 가장 먼저 꼽히는 곳이다. 그러나 가람 배치는 여느 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상사 입구에 마련된 연지蓮池는 아직 눈에 덮였다. 말라빠진 연잎이 하얗게 사위어 을씨년스런풍광을 자아낸다. 실상사 경내에 솟아난 거목들도 대부분 잎사귀가 여윌었으니 앙상한 가지들만 바람결에 하늘거린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춥다고 했던가? 싱그럽고 화사한 봄날을 목전에 두고 실상사는 파리하고 초췌한 모습이다.

지세를 돌아보면, 실상사는 지리산의 깊은 품을 더듬는 만수천을 옆에 끼고 입석리의 너른 들판에 자리를 잡았다. 동으로는 천왕봉과 마주하면서 남쪽의 반야봉과 서쪽의 심원달궁, 북쪽의 수청산 등을 병풍처럼 둘러쌌다.

우리나라 사찰의 대부분이 깊은 산중에 터를 열었는데, 실상사는 들판 한가운데로 내려왔다. 아주 특이한 자리 선택할 만하다. 물론 인근의 사찰 가운데 평지로 나왔은 단속사가 있기는 하나 단속사가 빈터에 석탑만을 남겼다면, 실상사의 절집다운 모습은 변함없다.

'천년사찰', '호국사찰' 로 널리 알려진 실상사는 828년(신라흥덕왕3)에 증각대사證覺大師 홍척洪陟스님이 세웠다. 스님은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지장智藏의 문하에서 선법禪法을 배운 뒤 귀국했다. 그 후 2년 동안 선정처禪定處를 찾아 전국의 산을 뒤지다가 지금의 자리에 실상사를 창건했다. 이곳은 스님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때 흥덕왕興德王은 절을 세울 수 있도록 커다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태자 선광宣光과 함께 이곳으로 귀의하였다.

실상사는 우리나라 선종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간 신라 말기 구산선문九山禪門가운데 최초의 사찰로 의미가 자못 깊다. 특히 가지산문과 실상산문은 일찍이'남악산문'과'북악산문'으로 일컬어질 만큼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구산선문 가운데 성주사와 굴산사는 이제 빈터로 전해 온다. 성주사 터에는 무염화상비문無染和尚碑文이 남았고, 굴산사 터는 국내 최대의 당간지주가 외로이 지키고 있다.

홍척스님은 실상사를 창건하고 선종을 크게 일으켰다. 그의 문하였던 수철화상秀徹和尚과 편운片雲스님은 남악선문 특유의 선풍으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실상사는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3차례에 걸친 중수와 복원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1468년 세조 때에 처음 화재가 일어났는데, 원인 불명이라는 기록과 왜구들에 의해 전소됐다는 설이 동시에 전해진다. 이 화재로 실상사의 승려들은 200년 이상을 백장암으로 옮겨 와 살았다. 절터에는 철불, 석탑, 석등 등만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침허대사가 나라에 상소를 올려 1680년(숙종6)에 36채의 대가람을 중건한 뒤 승려들은 다시 실상사로 처소를 옮겼다.

두 번째의 중건은 1821년(순조21)에 의암대사가 주도했으며, 다시1884년(고종21)에 월송대사가 세 번째로 중건해 오늘에 이른다.

세 번째로 중창을 하게 된 것은 1882년에 어떤 사람이 절터를 가로챌 목적으로 방화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동란 시기에 실상사는 또 한 차례 수난을 겪었다. 낮에는 국군, 밤에는 빨치산들이 점거하는 전란의 틈바구니에서 절간은 용케 화를 입지 않았다.

실상사는 평지에 조성되었으니 일견으로 자그마하게 보인다. 그러나 천왕문으로 들어서면 비로소 실상사의 위용이 실감난다. 실상사가 들판에 자리를 잡게 된 배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전설 한 꼭지가 남았다.

홍척스님이 중국에서 배운 선종의 종지를 이 땅에 전파할 즈음이다. 도선스님은 전라도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다. 도선스님은 평소 우리나라의 형세가 배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배의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전라도 땅은 왼쪽의 경상도에 비해 산이 적어서, 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왼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빼어난 정기가 일본으로 흐른다고 판단하였으니, 배가 기울어지는 쪽에 일본이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왜구들이 끊임없이 남녘 지방 일대를 노략질해 나라의 큰 걱정거리였다.

도선스님은 먼저 전라도 땅에서 기세가 허약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을 골랐다. 그리고 곳곳마다 탐과 불상으로 비보를 행하였으니, 화순의 운주사 주변에 천불과 천탑을 세운 일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어느 날 도선스님이 지리산 천왕봉에 이르렀을 때다. 문득 아래쪽에서 아주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기묘한 향기마저 뿜어 나왔다. 스님은 곧장 그곳으로 내려갔다.

“어허, 이게 무슨 조화이고? 주변의 지세가 마치 꽃송이의 수술처럼 생겼으니, 온 사방에 매화꽃이 떨어진 듯 향기가 진동하는구나. 그래, 이곳이 바로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의 천하 명당이로다.” 스님은 주변을 살폈다. 백두대간이 장엄한 행보를 마무리 짓는 지리산 천왕봉의 서쪽 아래에 완만하게 터를 연 산간분지였다.

그러나 스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은 정기가 뭉치기엔커녕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 바로 이 자리였구나.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던 자리가 참으로 이 자리였구나.”

스님은 마침내 전라도 땅에서 가장 취약하고 찼찼하던 자리를 찾게 되었다. 스님의 기쁨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무관세음보살! 매화에 덕향이 있다더니, 실로 매화 향기가 날 이곳으로 부른 게야.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은 예를 갖추어 공양을 올렸다. 그 순간이다. 어디선가 아름다운 동자 하나가 매화꽃 한 가지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선재동자였다. 선재동자가 스님에게 일렀다.

“스님, 스님의 나라 사랑에 부처님이 몹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스님의 나라에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말을 마친 선재동자는 홀연 자취를 감추었다. 조금 전까지 수북하게 쌓여 향기를 내뿜던 매화꽃 역시 한 송이도 남지 않고 죄 사라져 버렸다. 스님은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도선스님은 흥척스님으로 하여금 매화낙지형의 이 땅에 실상사를 지어 흠어지는 정기를 누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건물인 보광전 앞뜰에 2기의 삼층석탑을 동서로 쌓았다. 또한 1백30여 평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의 장육전을 세우고, 그 앞에 5층으로 만든 목탑을 세웠다. 목조탑 안에는 1000기의 불상을 모셔 비보로 삼았다.

실상사의 경내는 보광전普光殿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니, 앞쪽에 삼층석탑 2기와 석등이 자리를 잡았다. 삼층석탑과 석등은 각각 보물37호와 35호로 지정되었다. 둘 다 통일신라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백장암 삼층석탑, 석등과 같은 시기의 유산으로 미루어진다. 특히 삼층석탑은 상륜부相輪部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당시 정형 탑의 본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경내의 왼쪽을 살펴보면, 초라하면서도 정겨움이 물씬 풍기는 해우소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매우 예스러운 모습을 지녔기에 눈길을 끈다. 그 옆의 매화나무는 봄을 맞아 꽃눈을 부풀렸다.

다음 주는 <수청산 백장암> 네 번째 이야기 “철불과 범종에 얽힌 사연”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